

■ <요약> 완벽한 경제 발전 모델의 조건

- 경기 순환과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과거 10년간 각 경제 발전 모델의 성과를 성장률, 생산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비교할 때, 미국식 경제모델이 독일이나 일본식 경제모델의 성과보다 단연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
 - 각 경제모델은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특정한 성장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음.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경제모델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
 -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상적 경제모델도 달라짐. 60~70년대에는 일본식 경제모델이,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는 미국식 경제모델이 우세할 뿐임

- (시사점) 최선의 경제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각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경제 운영과 적절한 성장원동력 배양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함
 - 최근 미국식 경제모델의 월등한 성과에 도취되어 경제 여건의 차이를 간과한 채 미국식 경제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음
 - 미국처럼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‘미시적 경제모델’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재정·통화정책과 같은 ‘거시적 측면’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함

새로운 성장 전략 **완벽한 경제 발전 모델의 조건**

이 글은 *The Economist*, April 17th~23rd 1999. "Desperately seeking a perfect model" 을 번역한 것으로서, 각 국가간 경제모델 비교를 통해 완벽한 경제모델의 조건들을 고찰하고 있음

□ 문제 제기

-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호황을 지속하면서 유연한 노동·상품시장과 주주자본주의(**shareholder capitalism**)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경제모델이 성공적인 경제모델로서 인식되고 있음
 - 그 동안 성공적인 경제모델로 주목받아왔던 스웨덴, 독일, 뉴질랜드, 일본,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음
- 이 글에서는 각국가간 경제모델의 성과 비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경제모델에 대한 해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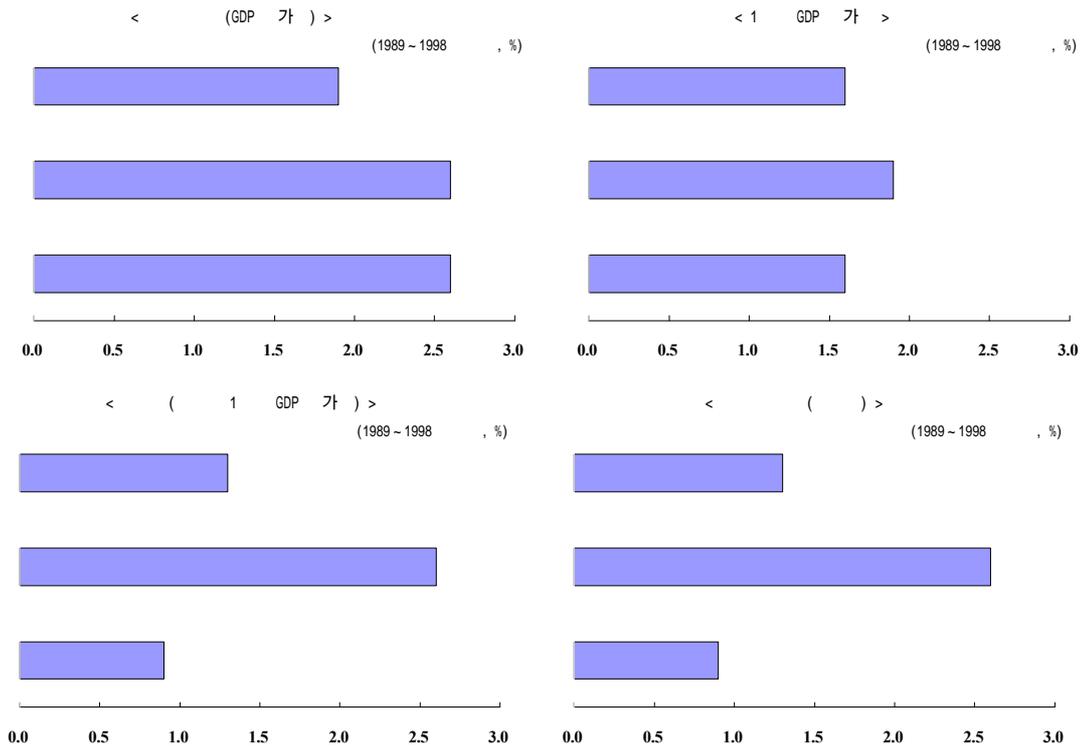
□ 과거 10년간 미국, 독일, 일본의 경제모델 성과 비교

- **(경제성장률)** 최근 7년간 미국의 GDP 증가율은 연평균 3.1%로, 일본의 0.8%나 독일의 1.7%에 비해 월등히 높음.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경기사이클을 감안하여 과거 10년간 GDP 증가율을 비교하면, 미국은 일본보다 높으나 독일과는 비슷함
 - **(1인당 GDP 증가율)** 각국의 인구 증가까지 감안하여 과거 10년간 1인당 GDP 증가율을 비교할 경우에 미국은 일본과는 같은 수준이나 독일보다는 낮음
- **(생산성)** 최근 미국의 생산성(근로자 1인당 GDP 기준) 증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고 빠름. 그러나 과거 10년간의 생산성을 비교하면, 일본의 생산성 증가가 미국보다 빠르며, 독일의 생산성 증가는 미국의 두 배에 달함
- **(일자리 창출)** 미국의 실업률은 4.2%로 독일의 10.5%에 비해 절반 수준을 하회하며,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4.6%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함. 그러나 과거 10년간의 실업률을 비교하면, 독일보다는 여전히 낮으나 일본보다는 높음
- **(종합)** 전반적으로 미국식 경제모델이 다른 경제모델에 비해 월등하다고는 단정적

으로 말할 수 없음. 특히 미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

- 미국의 소득 상위 20%에 속하는 계층이 하위 20%에 속하는 계층에 비해 9배 정도 소득이 높는데, 이는 일본(4배)이나 독일(6배)에 비해 월등히 높음

< 각 경제 모델의 장·단점 >



□ 각 경제 발전 모델의 장단점

- 최근의 월등한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,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국식 경제모델이 다른 경제모델과 유사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음
 - 일본과 독일은 경제적 선도국가(미국)에서 발명된 기술을 채택해서 뒤따라가는 양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짐
 - 경제모델간의 차이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음. 각 경제모델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(높은 저축률, 낮은 세금, 무역 개방, 양질의 교육, 법치,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 등) 중에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특정 요소를 강조하고 있을 뿐임
 - 이상적인 경제모델은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짐. 60~70년대에는 일본식 경제모델이 우세하였으며,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는 미국식 경제모델이 우세할 뿐임

- 경제체계에 있어서는 최선의 경제모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경제의 합리적인 운영과 적절한 성장원동력 배양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함
 - 따라서 미국처럼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‘미시적 경제모형’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‘거시적 측면’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함

< 각 경제 모델의 장·단점 >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국식 모델 | 장점 | - 유연한 노동 및 상품시장 - 낮은 세금 - 치열한 경쟁 - 주주 자본주의(shareholder capitalism) |
| | 단점 | - 광범위한 소득 불균형 - 낮은 복지 혜택 -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(초등·중등교육 등) - 낮은 투자율 및 저축률 |
| 일본식 모델 | 장점 | - 종신고용제에 따른 충성심과 높은 기술 숙련도 -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- 은행과 기업간의 긴밀한 관계 - 기업간 주식 상호보유 → 주주로부터 경영자의 독립성 확보 → 단기적 이윤 추구보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 가능 |
| | 단점 | - 과거 장점들이 현재 단점으로 작용(예 - 기업들이 시장의 경쟁압력으로 부터 보호 → 자본의 효율적 사용 저하) |
| 동아시아식 모델 | 특징 | - 공통적 특징 : 무역 개방, 높은 저축률 -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환경 및 제도로 인해 통일된 경제모형 설정 곤란 |
| 독일식 모델 (사회주의 시장경제) | 장점 | - 우수한 교육 및 훈련제도 - 관대한 복지제도와 낮은 임금 격차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조화 - 기업과 은행간의 긴밀한 관계 → 높은 수준의 투자 뒷받침 |
| | 단점 | - 지나치게 강력한 노조 - 높은 세금 - 관대한 실업수당과 광범위한 노동·상품시장 규제 → 높은 실업률 야기 |
| 스웨덴식 모델 | 장점 | - 상당한 복지수준, 낮은 임금 격차 및 효율적인 고용대책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시장 환경 |
| | 단점 | - 인플레이션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 - 실업률 증가로 고용대책의 자원 조달이 어려워짐 - 높은 개인 소득세로 인해 근로 의욕 감소 |
| 뉴질랜드식 모델 | 장점 | - 1980년대의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선진국 중 가장 규제가 많고 폐쇄된 경제가, 가장 낮은 세율, 가장 낮은 무역장벽, 광범위한 민영화 등을 통해 가장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전환됨 |
| | 단점 | - 불평등 급격히 심화 |
| 네덜란드식 모델 | 장점 | - 임금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,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에 대한 규제 완화, 사회보장세의 인하 등을 통해 실업률을 3.6% 수준으로 인하(Euro 11개국 평균 실업률 10.6%) |
| | 단점 | - 실업률은 낮으나 파트타임직의 비중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1/3을 차지 -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수당 또는 질병수당을 받고 있으며,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음 |

■ 김범구 주임연구원 bkkim@hri.co.kr ☎724-4016